



김수자

<약력> 1993 월간 '문학정신' 신인상, 현순전 문학회 및 전남수필문학회 회장, 1990년 신동아 논픽션 최우수상 수상·전남 문학상 수상, 수필집 '돼지일기'·'낭만산골'·'돼지꿈'·'8년만의 약속' 등 출간.

<감상노트> 지문이 많아서 지문인식이 통하지 않는 관계로 본인증명을 위해 면사무소 직원에게 남편이름을 대야 하는 황당한 꼴을 당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오늘날의 첨단 디지털 기능이 아무리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다지만 주어진 공식에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기계문명의 한계를 비웃는 듯합니다.

나는 요즘 별스런 일로 때 아닌 곤욕을 치르고 있다. 면사무소에 인감증명을 떼러 갔다가 지문(指紋) 인식이 되지 않아 낭패를 당했다. 시청 민원서류 무인발급기에서 서류를 떼 때도 지문 인식이 되지 않아 밀려났다. '본인이 아닙니다.' 라는 자막이 뜨면서 진행이 멈출 때는 말문이 막히고 역장이 무너졌다.

아니, 내가 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지문을 찍었는데 왜 나더러 내가 아니라고 할까? 설마 기계가 거짓말을 할 리는 없고, 그러면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가? 그 놈의 기계가 한 마디 설명이라도 해주면 덜 분할 것 같았다. 뿐인가. 손가락을 지문인식기에 대고 위로 옆으로 옮겨놓으며 입이 아프게 '다시, 다시'를 반복하던 면직원이 고개를 내저을 때는 절망의 나락이다. 뒤에 기다리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냉큼 물러서서 차례를 양보해야 한다.

지문이 나오지 않는 이유를 물으니 내 지문이 닳아져서 그렇단다. 지문을 보존 못한 것은 어쩔 내의 불찰(고의성은 없다 해도)일 법한데 어떤 직원과 기계를 고생시키니 기분이 언짢다. 지문이 닳은 이유로는 일을 많이 했거나 알 수 없는 원인 등이 있단다. 종종 나이 든 노인들에게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 지문이 닳을 만큼 일을 많이 했다면 영광의 상처이지 부끄러워 할 일은 아니다. 나는 보드랍고 하얀 손보다는 거칠고 투박한 손이 좋다.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

는 증거 아니겠는가.

그러나 내가 지문이 닳을 만큼 일을 했다는 말은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도대체 무슨 일을 얼마나 했다고? 젊은 시절에 그만한 일 안한 사람

70억 인구 중에 동일한 지문은 하나도 없다. 임신 2-4개월에 생성되며 태어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후천적 환경에 의해서 바뀌지 않는다(다만 흐릿해질 수는 있다). 잃

일도 없고, 중차대한 업무가 있는 것도 아닌 노인들의 처지에서는 몹시 야박스럽고 까칠한 처우가 아닐 수 없다. 하긴 산더미 같은 재물을 쌓아놓은 사람이라면 문제는 달라지겠지만...

불과 몇 년 전에는 지문 대신 서명이나 도장을 사용했다. 그러던 것이 언제부터인가 지문으로 대체되었다. 편의와 정확성, 속도를 중시하는 시류에 편승한 결과물일 것이다. 하지만 서류 한 번 떼 때마다 편리하기는 고사하고 고역을 되풀이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반길 일이 아니다. 재생을 하려해도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방법이 없으니 막막하다.

그런데 지금은 지문이 닳은 이유를 캐고, 닳은 지문을 한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떼야 한다. 문제는 지문 대신 지금부터 나는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나는 나를 무엇으로 증명할 단 말인가? 옛날 조선시대에는 얼굴 빛과 키, 수염 등으로 본인 증명을 하기도 했는데, 21세기 최첨단 시대의 '본인증명방법'이란 대체 뭘까? 긴장되고 흥미진진한 순간이다. 직원이 양해를 구한다.

"지금부터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 주세요. 별다른 방법이 없으니 노인들께는 그렇게들 하십시오."

나 말고도 지문이 닳은 사람들이 더러 있다하니 위안이 된다. 그러나 '노인'이란 말은 어쩐지 약간 거북스럽다. 거부감이 솟는 걸 보니 분명코 노

인은 노인인가 보다.

그 직원의 입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튀어나온 말은,

"남편 이름이 뭐니까?" "갑자기 남편 이름은 왜 묻지요? (놀란 표정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울 때는 가족관계로 증명하거든요. 종종 남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요."

다음으로 아들 이름과 아들의 생일을 묻는 것으로 확인은 끝났다. 아무려면 남편 이름을 모를까봐? 아들 이름과 생일을 모르는 엄마가 있을라고? 어려운 질문을 예상하고 잔뜩 얼어있던 감탕으로는 너무 쉬워서 피식 웃음이 나왔다.

직원은 뻔히 아는 처지에 매번 가족 확인을 하는 것이 민망했던지 다음에는 주민등록증을 갱신하자고 했다. 혹시 다른 손가락에 지문이 남아있을 지도 모르니까 그것으로 등록해 놓자는 것이다. 옳다구나, 나는 서둘러 주민등록증을 갱신했으나 열손가락 하나 같이 지문이 나오지 않았다. 인식도 되지 않는 흐릿한 지문을 토해놓았을 뿐이다. 그러니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남편과 아들의 이름만은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어쩌나. 여자는 치매가 오면 제일 먼저 남편 이름을 까먹고, 남편은 치매와 와도 끝까지 아내 이름만은 기억한다고 하니 이 방법은 좀 불공평한 것 같다. 치매가 와도 아들 이름만은 결코 잊어버리는 일이 없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남편 이름이 뭐니까?



어 어디 있겠나. 세탁기가 없던 시절이니 손빨래를 했을 테고, 돼지농장을 했으니 돼지걸레를 한동안 빨았을 것이다. 지금은 1회용 분만걸레가 나와 있지만 예전에는 손으로 빨아서 몇 번이고 사용했다. 누구나 다 하는 밥하고 설거지 하고 청소하고 그것이 전부이지 무슨 할 일이 더 있었겠는가? 참 엄살스럽고 난처한 순간이다.

도대체 지문이 뭐 길래 이 법적인가 싶어 검색해보았다.

"지문은 한 사람당 하나만 가질 수 있는 일종의 고유 번호다. 지구상의

어버리거나 타인이 훔쳐갈 수 없다. 비밀번호처럼 외출 필요가 없고 어깨 너머로 누군가 훔쳐보아도 도난당할 위험이 없다. 지문으로 본인 인증을 하여 출퇴근이나 출입기록을 관리한다. 대리근무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원밖에 가까운 본인 증명수단이다. 무엇보다도 휴대가 간편한 것이 큰 장점이다.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를 줄이고 가짜를 방지하는 편리한 시스템이다. 이러하니 까다롭게 취급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겠다. 그러나 출퇴근할

영혼의 향기

밤이슬 깨우는 태양의 웃음이
차라피하 석공의 눈빛으로 다가오며
오묘히 흐르는 사랑의 선율 따라
활활 타오르는 생명의 불꽃

노을빛 언저리에서
노상에 흐르는 번민의 숨결을 재우면
감미로운 녹색 선율 따라
맑은 빛깔로 태어나는 사랑의 확회
거룩함 지고지성(至高至善)이여

옥설같이 푸른 마음으로
허무의 망상을 벗고
순간에서 영영으로 지향하는
밝음의 농도를 일깨우면
덕성스러운 가득
정갈한 몸매의 거룩함이여

이상의 날개에 실은 푸른 꿈
영혼의 향기로 흐르리.



soon 우금수

<약력> '문학춘추' 시 부문 등단. 초등학교 교장 정년퇴임, 한국문인협회 곡성지부장·전남문인협회 부회장·전남시인협회 이사·문학춘추작가회 부회장 등 역임. 전남문학상·전남시문학상·존경하는 스승상 수상. 시집 '섬진강 연가' 외 3권 출간.

<감상노트> 영혼의 향기는 누구나 지니고 싶어하는 지고지순한 심상의 대명사이다. 태양의 선광이 눈빛 찬란한 아침햇살로 밝아오면, 아련히 떠오르는 사랑의 추억에 생명의 불꽃이 생생하게 일어서곤 한다. '시인은 시를 씀으로서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그것은 어떤 기도보다도 훨씬 아름다운 내용을 펼치기 때문'이라던가. 어느덧 붉게 물든 노을 자락에 서서, 은발의 시심에 여울지는 생애의 물결 속에서, 파닥이는 번민을 여성적 녹색 선율 진력적으로 승화시키는 시인의 모습. 어쩌면 그는 아직도 성성한 이상에 대한 연민의 숨결을 고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다. 순간에서 영원한 시 꽃을 피워 내려는 순수한 열정이다. 끝없이 흐르는 세월 강 언저리에서도, 하루하루 꿈의 날개 꺾지 않고, 풀꽃처럼 맑고 선한 몸짓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시인의 정갈한 심사가 읽는 이의 아침을 환하게 밝혀준다.

흥매화에 쫓기다

게 샀거라!
쌍계사를 돌아드는
섬진강 골짜기가 찌렁하다.

걸음이 날 살려라
풍무니를 빼고 도망치는
겨울의 등 뒤에 대고
마약 꽃잎을 벌굴은 흥매화
나무들이 소리치고 있다.

동지선달 위세를 떨치던
눈바람이 아무리 매섭다 해도
향기를 내뿜으며 손짓하는
흥매화의 눈웃음을 어찌 이길까 보나.

지리산 천황봉도
달아나는 겨울을 굶어보며
힘머리를 거게 물들이고
허허히 봄을 맞는다.



우진 임원식

<약력> 송실대학교 경상대학·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조선대학교 대학원(문학박사)·송실대 명예철학박사, '월간문학' 평론, '유심' 시, '문예사조' 시·소설 등단. 시집 '어머니의베들소리'·'19홀은 있다'·'햇볕은 계절이 없다'·'사랑이 오는 시간' 등 15권 출간. 광주문학상·창조문에 문학상 수상, 한국문인협회(평론)·한국시인협회·국제PEN 회원, 현 광주문인협회 회장, (주)온누리태양광 회장

<감상노트> 지구상에서도 복 받은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사계는 아름답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계절 하나 버릴 것이 있을까. 그 중에 낙엽이 꽃잎처럼 날리던 가을이 가고, 눈보라 휘날리는 겨울

을 맞이하여, 우리네 삶도 웅이 지며, 추위를 견디는 인내와 시련의 계절을 부대끼듯 살아왔는데, 이제는 슬슬 뒷걸음치며 달아나는 겨울의 뒷모습을 본다. 동지선달 위세를 떨치며 우리 걸음 차갑게 지켰던 겨울바람도 성숙을 위한 성장통인 듯 지나갔다. 예서저서 거드름이 간지러워 가지가 깨며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새순의 바깥나들이가 마냥 사랑스러운 듯 봄볕은 포근함에 감기는 눈으로 반겨준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눈 속에서 피는 꽃 중에 매화가 으뜸이라고 한다. 잎보다 먼저 수줍은 얼굴 내미는 붉은 꽃망울, 꽃말처럼 고결하게 참아내고 순결한 정조를 간직해온, 섬진강 주변 흥매화의 꽃잎 뺨치는 소리에 모두의 마음까지 화사해진다. 지리산 천황봉도 잔설을 떨쳐내고 눈빛 파란 봄날의 찬가를 보내오고 있다.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